

KB가 쏘아올린 ‘세대교체’…금융권으로 번지나

KB 차기 은행장에 만 55세 이재근 후보 선정
계열사 CEO 인사, ‘젊은 피’로 대거 교체 전망
은행 디지털 전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
라이벌 신한금융 연말 인사에도 영향 끼칠 듯

차기 KB국민은행장에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추천되면서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는 평가와 함께, 나머지 KB금융 계열사와 금융권 전반에 인사 태풍이 점쳐지고 있다. 이 후보가 만 55세의 젊은 은행장인 만큼, KB금융 계열사를 비롯해 연말에 이어질 타 금융사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근 후보, 5대 시중은행장 중 가장 젊어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이재근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KB금융은 1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대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을 단독 추천했다. 대추위는 “은행의 플랫폼 역량이 새로운 경쟁우위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재근 영업그룹대표를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빅테크와의 치열한 경쟁이 맞물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안정보다는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경영진이 필요한 시기인 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영업, 재무, 전략 등 은행 내 주요 핵심 직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고객과 시장, 영업현장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감성을 공감하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임직원들의 높은 신망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1966년생으로 은행장으로 선임될 경우 5대 시중은행장 중 가장 젊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1961년생,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1963년생,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1964년생이다. 특히 라이벌 신한은행의 진 행장과는 다섯 살 차이가 난다.

●KB금융 계열사 CEO 인사에 영향 미칠 듯

이번 인사로 KB금융 계열사 경영진이 50세 안팎의 젊은 세대로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KB금융 계열사 대표로는 허인 KB국민은행장(1961년생)을 포함해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 대표(1963년생),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1961년생),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1966년생), 황수남 KB캐피탈 대표(1964년생), 허정수 KB생명보험 대표(1960년생), 신희섭 KB저축은행 대표(1962년생),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대표(1970년생) 등 9명이 있다.

이중 차기 KB국민은행장이 추천되면서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 이동하게 됐다. 또 2018년 취임한 이동철 대표도 꾸준히 KB국민카드의 실적 상승을 이끌어 KB금융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961년생 동갑내기인 양종희 KB금융 부회장을 비롯해 허인 행장, 이동철 대표가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B금융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10년 만에 부회장직을 부활시켰으며, 이 자리는 2023년 11월 임기를 마치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후계 구도로 인식돼왔다.

라이벌 신한금융의 연말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B금융이 세대교체 신호탄을 쏜 만큼, 신한금융 또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등 신한금융 핵심계열사 경영진은 임기가 내년 12월까지라 이번 연말에는 인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신한자산운용,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등 타 계열



KB국민은행이 쏘아올린 ‘세대교체’ 인사가 KB금융 계열사 및 금융권으로 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 사옥. 사진제공 KB국민은행

사 CEO 대부분이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세대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B금융의 경우 KB국민은행장을 통해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만큼, 계열사 대표에 젊은 피가 대거 수혈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 인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일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이 금융권을 강타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상상인금융,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 최대 연 2.7%



상상인금융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인 ‘뱅뱅뱅’과 ‘크크크’(사진)의 앱 전용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연 2.7%로 인상했다. ‘뱅뱅뱅 정기예금’과 ‘크크크 정기예금’으로, 12개월 기준 연 2.7% 금리를 적용한다. 1인 10만 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상상인디지털뱅크 ‘뱅뱅뱅’과 ‘크크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노력으로 봐 달라”고 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포럼 2022’ 개최



미래에셋증권(사진)이 10일까지 매일 오후 4시에 자사 유튜브채널인 스마트머니를 통해 ‘리서치 포럼 2022’를 개최한다. 내년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소개하는 자

리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혁신의 대중화’에 집중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우주산업 등 최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혁신 테마들을 깊이 분석해 투자 가이드를 제공한다. 라이브 대담을 포함해 퀴즈, 실시간 채팅, 삼행시 등을 통해 다양한 고객 감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 세계 유망성이 혁신의 대중화를 주도하는 산업과 기업에 쏠리고 있다”며 “세상의 흐름을 읽고 고객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대비를 위한 올바른 투자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캠페인’ 시행

신한은행이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캠페인’(사진)을 진행한다. 영업점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고압세척과 건조 코팅과정을 거쳐 패션 가방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생산 하는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활동이다.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캠페인을 통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패션 가방은 모바일뱅킹 신한 솔(SOL)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용기 챌린지 캠페인’ 참여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 | 신한키 기자 mythuki@donga.com

하나은행-고려대, 스마트 캠퍼스 구축 위한 업무협약

모바일학생증·학사관리 등 앱 하나로 관리
간편결제 ‘쿠팡페이’ 탑재…학내·외서 앱 결제

하나은행과 고려대가 최근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고려대 스마트 캠퍼스 구축의 핵심사업인 고려대 통합 앱을 개발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려대 교직원, 재학생, 교우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내·외에서의 앱 결제 기능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 통합 앱은 그간 별개로 운영하던 모바일학생증, 학사관리, 학교시설 사용 예약 등의 기능이 하나의 앱에 담길 예정이다. 특히 바코드, QR코드 등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한 가정 ‘쿠팡페이(KUPAY)’ 기능을 탑재하게 된다. 학생식당, 복합기, 증명서 키오스크 결제 등 학내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뿐 아니라 학교 인근 상점 결제, 학교 측 연구마일리지, 장학금 등의 지급 수단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 앱 개발은 총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로 2022년 신학기 적용을 목표로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학생증 기반에 결제기능을 접목한다. 2단계로 2022년 8월 말까지 나머지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고 결제 사용처를 고려대의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태 고려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ESG 사회적 책무 이행과 비대면 시대에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참여형 스마트캠퍼스 프로젝트로서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소통과 공



박성호 하나은행장(오른쪽)과 정진태 고려대 총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I 하나은행

유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고려대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통합 앱 구축에 대한 노하우를 타 대학에도 공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7일(화) 음력: 11월 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화개살 일이다. 화개가 화개를 만났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은 모든 일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오늘은 월살이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난 격이다.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일상생활을 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피라. 오늘은 반안일이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오늘은 화개일이다. 화개는 종교교, 예술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천살일이며 말피에게는 식신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오늘은 월살일이며 양피에게는 비견이다.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금기아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운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화개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오늘은 월살일이다.						